

# 왕십리

2005년 3월호 [격월간]



봄처럼 믿음의 싹을 틔우며

내 · 마 · 음 · 의 · 풍 · 경



내가 놓아야 할 것들...

내가 붙들고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그것이 영원한 것인지  
영원할 수 없는 것인지 생각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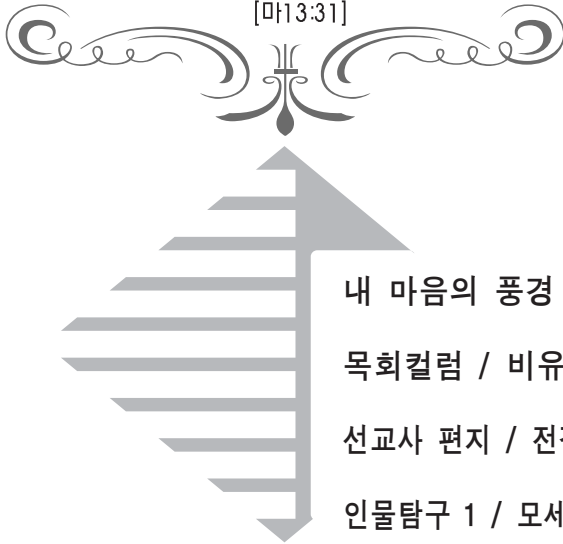
글 · 사진 / 차주영

# - 이달의 성구 -

목 차 / Contents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낫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마13:31]



내 마음의 풍경 / 내가 놓아야 할 것들…….	- 3
목회컬럼 / 비유 인생	- 4
선교사 편지 / 전갈(Scorpion)	-5
인물탐구 1 / 모세	-6
되새김질 / 죽음으로부터 자유	-8
부서소개 / 2005년 유치부의 꿈	-12
순교자 열전 / 돌아온 탕자(1) - 박관준 장로편	-14
건강상식 / 오십견	-16
수필 / 겨울 창문	-17
왕십리 이모저모 / 초등, 중등, 고등부 동계수련회, EMTC훈련생모집	-18
왕십리블로그 / “축호”란 ·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 20
가정예배 /	-21
책소개 / 세상과 충돌하라	-25
음반소개 / 아카펠라 모던워십	-26
요리 / 새우리조또	-27

WANGSIMINI 3


# 비유 인생

성경에는 비유가 많이 나온다. 예수님의 씨뿌리는 비유, 누룩의 비유 등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많았다. '천국은 겨자씨같다' 라는 말씀은 정말 멋진 비유다. 천국과 겨자씨가 어떻게 닮은 꼴일 수 있을까. 그러나 예수님은 겨자씨 속에서 천국을 보고 계셨으니 우리에게도 한없는 희망을 주시는 비유이다. 겨자씨 보다도 작은 인생인 나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자신을 겨자씨라고 부르시는 분이 계시다. 그 분은 편지를 쓰실 때에도 겨자씨라고 자신을 표현하신다. 겨자씨는 그런 면에서 참으로 행복한 존재이다.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작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불평할 일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작기 때문에 천국과 비교되고 훌륭한 신앙인격을 가지신 권사님 과도 비교되기 때문이다. 겨자씨가 컸더라면 그런 영광을 누리지는 못했을 것이다.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 그 분의 이미지로 지어졌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그 분의 이미지라니 정말 대단한 것이 아닌가. 우리 인생 하나가 감히 천지를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그 분과 비교된다니 너무도 죄송할 따름이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은 사실이다. 하나님의 생각, 느끼심, 의지 등을 이해하는데 사람만큼 좋은 교과서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속죄의 공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우는 성도들, 교인들이

모인 교회는 하나님과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게 하는 가장 좋은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교회가 설립되고 몇 주년을 기념한다는 사실은 이런 면에서 정말 대단한 일이다. 교회는 사랑이 가득한 천국백성의 이미지를 보이는 비유 인생의 공동체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의 나라라고 부를 수 있다.

사랑의 나라. 정말 사랑이 무엇일까. 그 사랑의 결합을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경험하는데 정말 사랑은 하나되는 일인가 보다. 사랑하면 하나됨을 경험하니깐. 사랑하면 만나고 싶고 서로의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고 싶어진다. 이 땅의 많은 사랑들이 있지만 그러나 한가지 마음에 짐이 있다. 사랑의 하나됨을 경험했다면 번역하고 있는가. 주님의 사랑이 이것이다, 라는 번역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사랑의 비유인생인가, 라는 짐이 있다. 겨자씨같아도 정말 진실한 사랑의 씨가 마음에 있다면 그 씨를 번식시키고 싶다. 사랑의 나라의 비유인생이고 싶다.

이제 어느덧 삼월. 정이월 다가고 삼월이라네... 진달래, 개나리, 철쭉이 사랑의 봄가지개를 시작하는 계절. 나도 나의 짝, 사랑의 파트너와 함께 비유인생이 되기를 꿈꾸어본다. 감추어지는 사랑을 가지고 소외자를 찾으며 모든 것을 함께 나눌 봄꽃씨, 한 모듬을 보듬은채.....

# 전갈 (Scorpion)

엄경섭 · 차남준 선교사님은 본 교회의 주일학교 출신으로 현재 이 디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며 사역하고 계십니다. 본 글은 본 교회 선교게시판의 선교사편지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전갈은 독을 지니고 있는 거미 류의 절지동물로서 전세계적으로 그 종류가 1,300종에 이릅니다. 보통 사막에서만 사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초원이나 숲 속, 동굴 등에서도 발견됩니다. 히말라야 산맥 눈 덮인 돌 밑에서도 발견된다고 합니다.

전갈은 밤에 다니기를 좋아하며, 각종 곤충, 거미, 지네, 또는 다른 전갈을 잡아 먹습니다. 큰놈은 도마뱀, 뱀, 생쥐도 잡아 먹는다고 합니다. 암놈은 종류에 따라 임신기간이 심지어 1년 반에 달하는 것도 있지만 대개가 수개월의 임신기간을 거쳐 보통 25-35마리의 새끼를 낳습니다. 수명은 보통 3년에서 5년이지만 종류에 따라 10년에서 15년까지 사는 것들도 있습니다.

꼬리에는 독이 들어 있는데 먹이를 잡거나 자신을 보호하는데 사용합니다. 전갈의 독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화학물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경계에 작용하는 독소를 담고 있습니다. 전갈에 물리면 대개가 심한 고통을 느끼면서 물린 자리가 부어 오르며, 때때로 입의 거품, 근육의 뒤 틀림, 호흡곤란, 무감각, 경련 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실제로 전갈에 물려 죽는 일은 드물지만, 어느 통계에 따르면 전갈에 물려 입원한 환자 중에 4% 정도가 죽는다고 합니다. 죽는 이들의 대부분은 유아나 연로한 이들로써 전갈에 물린 후 심장이나 호흡에 곤란이 생겨 죽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굵지 기지에도 전갈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갈에 물리기도 하기에 항상 신발을 신고 다녀야 합니다. 간혹 돌을 들쳐보면 돌 밑에 숨어 있는 전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노출된 전갈은 빨리 도망가지 않기 때문에 전갈을 돌로 친다

거나 나무로 짓이겨서 쉽게 죽일 수가 있습니다. 돌을 들쳐낼 때는 조심해야 하는데, 이는 전갈뿐만 아니라 간혹 돌 속에 뱀이 숨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가다가 우리가 지내고 있는 초가 안에도 전갈이 돌아 다닙니다. 초가는 뜨거운 건기에 햇볕을 가려주고 습기를 유지해 주기에 사람뿐만 아니라 뱀이나 생쥐, 전갈에게도 좋은 안식처가 되기도 합니다. 구석진 곳에 뱀이 숨어 있기도 하고, 처마를 따라 생쥐들이 뛰어다니기도 하고, 바닥에서 기어 다니는 각종 벌레들 틈에 전갈이 끼어 있기도 합니다.

가여운 전갈 한 마리가 집안을 돌아다니다가 처참하게 살해 당하였습니다. 아내가 빈 물통으로 내리 짚은 것입니다. 그것도 잔인하게도 물통으로 짓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아내는 스스로가 대견스러운지 자기가 전갈을 죽였다고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말합니다. 오지에서 나름대로 살아 남으려고 조금은 의도적으로 씩씩하게 행동하는 모습이 애처로워 보이기도 하지만, 산골짜기에 살다 보니 여자의 간이 점점 커지는 갈아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



# 모세

글. 이상훈 부목사

모세가 담대할 수 있었던 까닭은 .....  
모세가 바로와의 논쟁을 통해  
이 세상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홍해 앞에서 모두가 벌벌 떨며 애굽을 떠난 것을 후회한다. 그러나 홍해 앞에 선 모세의 담대한 행동은 그의 영웅됨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대제국의 제왕 바로로부터 일 이백만명의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모세는 진정 위대한 거인이며, 강력한 카리스마를 소유한 영웅임에 틀림없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8번이나 거절한다. 그런 모세를 설득하려고 하나님은 떨기나무의 기적,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기적, 손에 문둥병이 걸리는 기적, 물이 피로 변하는 기적 등을 보여주시기까지 했다. 그도 모자라 찾아와 설득하시고, 아론을 붙여 주시기도 했지만 모세는 끈질지게 거절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는다면 혼날 줄 알라”고 전하라고 했지만, 모세는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칠지도 모르니까 보내주세요”라고 꼬리를 내린다. 차마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칠 것이라는 말을 던지지 못했던 것이다.

아니 어떻게 모세가 저리도 소심할 수가 있었을까? 그리고 그런 모세가 어떻게 홍해 앞에서는 그렇게 강력한 카리스마를 발휘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겁쟁이 모세가 홍해의 영웅이 될 수 있었을까?

나는 모세가 경험한 10가지 기적이 모세를 그렇게 변화시킨 것으로 알았다. 그래서 10

가지 기적은 고사하고 파리 한 마리 제대로 잡지 못하는 내 모습에 절망할 뿐이었다. 적어도 그런 기적이 있어야 모세처럼 능력있는 지도자가 될 터인데 말이다.

그런데 홍해 앞에 선 장면에서 그간 나의 생각이 잘못 된 것이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10가지 기적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경험했던 기적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을 떠나려고 짐을 싸들고 홍해 앞까지 나온 것이다. 그러나 홍해가 가로 막고, 바로의 군대가 뒤쫓으니까 다시금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다. 기적은 이스라엘을 홍해 앞까지 인도하는데까지는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홍해를 건너게 하지는 못했던 것이다.

출애굽은 10가지 재앙으로 쉽게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다. 바로의 방해가 있었고, 이스라엘을 보내준다고 했다가도 바로의 변덕으로 인한 5번의 약속파기가 있었다. 또한 바로가 모세를 말리기 위해 제시했던 타협안들도 있었다. 모세는 바로가 제시하는 타협안에 응답해야만 했다. 바로 이것이 모세를 홍해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게 만든 원동력이었다. 다음은 바로와 모세의 네 번에 걸친 논쟁을 간략하게 요약한 것이다.

첫 번째는 바로가 모세의 제안을 한번에 거절한다. 모세의 주장에 대해 바로는 “바쁘는데 무슨 신앙생활이냐?”는 논리로 모세를 공격하며, 오히려 더 힘든 작업을 시킨다. 물론 애굽의 국고성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바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모세는 바쁘더라도,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바쁘기에 신앙생활이 게을러지고 있다면, 우리는 흥해 앞에서 담대해질 수 없다. 왜냐하면 건널 생각도 안 할 것이기 때문이다. 모세조차 바로의 거절에 상심한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모세처럼 하나님께 그 상한 마음을 쏟아놓는 것 밖에 없다.


**두 번째는 바로가 10가지 재앙 중 4개를 당한 후에 모세를 불러 타협안다운 제안을 한다.** “보내기는 보낼테니,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는 것이었다. 이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애굽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갈 수 있다. 오늘날의 바로왕의 이 제안은 믿기는 믿되, 너무 깊이 믿지는 말라, 또는 믿기는 믿되, 주일날에만 믿고 너무 멀리 평일까지 티내지는 말라, 믿기는 믿되, 교회에서나 믿고, 너무 멀리 가정이나 일터나 학교 같은 데서는 믿지 말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모세는 그것이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이 아님을 알았다. 하나님의 뜻은 애굽을 떠나는 것이었다. 이에 모세는 바로의 타협안을 단호하게 거절한다.

**세 번째로 바로는 또다른 타협안을 제시한다.** “보내줄테니 너희 남정들만 가라”는 것이다. 아이들이나 여자들은 남겨두고, 너희들이나 가서 신앙생활하라는 타협안이었다. 오늘날의 바로왕의 이 제안은 괜히 다른 사람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나 신앙생활하라고 타협안을 제시할 것이다. 이에 모세는 침묵한다. 묵묵히 자신의 사명에 충성할 뿐이었다. 오직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할 뿐이었다.

**마지막으로 바로는 “보내줄테니 재물은 두고 가라”는 타협안을 제시한다.** 당시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보낸다는 것은 분명히 엄

청난 경제적 손실이었다. 그래서 본전이라도 찾으려는 생각에 양과 소는 두고 가라고 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바로의 성향으로 미루어 볼 때, 바로는 재물을 통해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방해하려고 한 듯하다. 양과 소도 없이 광야로 나가면, 결국에는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계산으로 말이다. 그러나 모세는 양과 소와 같은 재물을 가지고 나서는 것이 단지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가지고 간다고 주장했다. 바로의 타협안을 통과해 오면서 변화된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위와 같은 네가지 바로의 타협안은 출애굽을 방해하기 위해 준비된 날카로운 설득 도구가 된다. 바쁘니까 나중에, 대충대충 적당히, 나나 잘하지 뭐, 돈따로 신앙따로. 모세는 이러한 바로왕의 설득에 때로는 상심하고 때로는 통곡하며, 침묵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따르겠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이렇게 바로왕의 설득과 싸워가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다 분명히 읽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흥해 앞에서 주저 앉는 것은 바로의 말을 따르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결국 흥해 앞에서도 모세가 담대할 수 있었던 까닭은 10가지 기적이 놀라웠기 때문이 아니었다. 모세가 바로와의 논쟁을 통해 이 세상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는가? 



사회봉사위원회 헌신예배 (2월 20일)

# 죽음으로부터 자유

원주희 목사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으니라(히브리서 2:15-18)

생동감 있는 내용전달을 위해 문어체를 사용하지 않고 구어체를 사용했으며, 할애된 지면의 부족으로 인해 많은 부분을 생략하였습니다. 본 설교는 왕십리 교회 웹사이트 왕십리 방송의 주일 찬양 예배란에서 VOD로 다시 볼수 있습니다. /편집자

WANGSIMNI 8

성도 여러분!  
주안에서 뵈게 돼서 반갑습니다. 왕십리 교회에 늘 사랑의 빛을 많이 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나라 왕십리 교회의 상징인 노란 가운을 입은 봉사자들이 ‘샘물에 집’에 나타나면 얼마나 힘을 얻는지 모릅니다. 죽음을 돕는 호스피스(hospice) 활동을 하면서 많이 지쳐 있을때 오시면 저희에게 격려가 되거든요. 이 자리를 빌어서 호스피스 봉사를 해주시는 왕십리 교회 봉사단에게 감사 드리고, 살롬 중창단, 크로마 하프단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회 봉사위원회 헌신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이 헌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새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배 열척에 7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나뉘어 타고 항해를 합니다. 몇 달을 향해 해서 미지의 땅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내려서 이 땅이 어떤 땅인가를 살펴보는 데 탐험대 대장은 타고 온 배에 불을 질러 모두 태워 버렸습니다. 타고 온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차하면 되돌아갈 배였으니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대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대장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이제 돌아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든지 살든지 여기서 끝을 봐야 합니다.” 이게 바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헌신이란 다시 되돌아 가지 않겠다. 헌신하는 그곳에서 죽겠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해내겠다. 그것이 바로 헌신의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사회 구석구석을 개혁하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에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포기하지 말고 뒤돌아가지 말고 그곳에서 맡은 일을 마쳐야 합니다.

**‘다시 되돌아 가지 않고, 죽을 각오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일을 해내겠다’는 것이 바로 헌신의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호스피스 봉사를 시작한지가 12년이 지났고,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10년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젊은 시절 20년을 죽음이라는 문제와 말기 암이라는 문제로 싸우게 하셨습니다. 그 동안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처음에 약사 면허를 가지고 세상을 빛내겠다고 약국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호스피스 사역을 하려고 10년을 준비해 36살에 신학을 시작, 목사 안수를 받고 12년째 말기 암 환자 1900명의 임종을 지켰습니다. 그 동안 엄청



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체력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팀들의 어려움과 봉사하려는 사람들의 제한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그럴 때마다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난 헌신된 사람이야.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죽는 거야. 내가 돌아갈 길은 없어!’ 그런 마음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살아왔고 버티고 있습니다. 호스피스는 죽음을 눈 앞에 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 문제에 관해서는 책임을 지는 사람들입니다.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중 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15절)’ 즉,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죽음 앞에 떠는 인생을 자유롭게 해주려고 오신 거예요. 본문에 “놓아 주려 하심이니”란 말은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죽음 앞에 서면 하나같이 두려워합니다. 제가 영구차를 타고 다닙니다. 하루는 어떤 성도가 제게 차를 태워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요 타세요.” “이게 무슨 차예요.” “장의차예요.” “목사님 그냥 혼자 갈래요. 그냥 가세요.” 장의차만 보아도 무서워 떠는 인생들, 관만 봐도 무서워 떠는

**예수님이 이땅에 오신 목적은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중 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어 죽음 앞에 자유롭게 해주려고 오신 거예요.**

인생들, 수의만 봐도 별별 땀니다. 죽음의 종살이하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요5:25).’ 우리는 본질적으로 생명으로 옮긴 이들입니다.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망가진 육신의 장막을 수리하러 가는 것이지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닙니



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미 본질적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영구차만 탔다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고, 암이 걸려 이 땅을 떠날 시간이 되었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샘물의 집에는 말기 암 환자들이 들어오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들어오고 안 믿는 사람도 들어옵니다. 안 믿는 사람은 복음을 전해서 세례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서 보내드리고, 믿는 분들은 더 잘 믿으시라고 견고한 믿음을 세워드리는 일을 하면서 이분들에게 죽음 준비를 시켜드립니다. 천국 잘 가시라고.. 그런데 어떤 분들이 잘 준비하느냐 하면 예수 안 믿다가 복음을 막 받아들이는 분들은 잘 준비합니다. 얼마나 잘 준비하는 지 모릅니다. 찬송을 불러도 얼마나 좋은 천국 찬송을 부릅니다.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오늘은 이곳 저곳 주 복음 전하리 ♪♪

아멘! 순례자의 노래, 인생 나그네 길 끝나면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이것이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이제 깨달은 겁니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같이 천국에 가자고 전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평생시에 잘 믿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죽음 앞에서 준비 안하고 너무 너무 힘들어 하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 떠는 거예요. 이것이 제대로 된 신앙인지 내가 분간을 못하겠어요. 고린도 전서 15:26절에 성도의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 사망을 못 이기면 다 못 이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복음의 능력이 죽음 앞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날

마다 보면서 제 자신의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 지 몰라요.

죽음하면 모르는 것이 3가지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어디서 죽을지 모르고,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것이 죽음입니다. 갑자기 암에 걸려 죽는 사람들을 봅니다. 내가 이 나이에 죽을 지 몰랐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죽음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예배당에서는 안죽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느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천장이 무너졌어요. 주일학교 교사가 그 밑에서 죽었어요. 이런 사건이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 죽음하면 모르는 것 3가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어디서 죽을지 모르고,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 아는 것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죽음! 순서 없이 가는 길입니다. 누구나 한 번은 가는 길이요, 나이 어린 사람들이 얼마나 가는 지 몰라요. 얼마 전에 17살짜리 소녀 아이가 왔습니다. 부모가 이혼하고 친지마저도 버려서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16살에 암에 걸려서 치료하지 못하고 17살에 '샘물의 집'에 왔어요. 얼마나 무서워 하는지, 얼마나 외로워 하는지, '부모와 친지들이 품을 떠나고, 사랑하는 고아원 식구들하고도 떠나서, 이제 나는 암으로 죽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꼭 끌어 안아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내 딸이다. 하나님께서 너와 나를 만나게 하신 것은 너와 마지막까지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너 외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너를 보내신 거야. 이 세상 병원에서는 더 이상 너를 못 고쳐서, 하나님이 천국 병원으로 너를 부르신다. 거기에 가서 고치면 된다." 삶과 죽음에 대한 의문이 복음 안에서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 지고, 얼굴이 행복해 졌어요. 죽기 3시간 전에 숨이 차서 저를 불렀어요. "저 이제 곧 갈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런데 저 죽음이 두렵지 않아 졌어요. 외롭지 않아졌어요. 봉사자들의 도움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찬송하나 불러주세요." "무슨 찬송 좋아하니?" 봉사자중에 와서 부른 찬송 중에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이 좋대요. 부모와 친지가 날 버려도 주님은 날 버리시고 앉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두렵고 외로운 길을 해결해 주셔서 고맙다고 찬양해 달래요. 그래서 찬양해 줬어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이 찬양을 해줬더니 애가 힘없는 손을 흔들면서 "목사님 고마워요 나중에 뵈요" 얼마나 멋있어요. 어느 암으로 죽는 사람이 자기 장례식때 이런 글을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암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랑을 무력하게 만들 수도 없고  
소망을 깰 수 없고  
믿음을 좀 먹을 수 없고  
평화를 삼킬 수 없고  
자신감을 파괴할 수 없고  
우정을 죽일 수 없고  
추억을 막을 수 없고  
용기를 죽일 수 없고  
영혼을 침범할 수 없고  
영생을 죽일 수 없고  
성령의 불을 끌 수 없고  
부활의 권능을 줄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적은 병이 아니라  
절망입니다.**



준비 안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 지 모릅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앎이니라(고전15:55-58).” 사도 바울의 고린도 전서 15장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음! 외롭고 두려운 길입니다. 아무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들 몸부림 칩니다. 잃은 양을 찾는 마지막 기회가 호스피스 사역 현장에서 이루어 집니다. 마지막 가는 길에 예수 복음 전하면서 세례를 받고, 믿지 않은 온 가족들 까지도 세례를 받습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둘이 가는 길  
함께 가는 길  
사랑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다.  
어느날 물 차오르는 해변 앞에서  
손을 잡듯이  
풍파가 많아 숨도 못 쉴 것 같은 세상속에서**

**손 내밀면 가만히 잡혀오고  
손 내밀며 가만히 잡아주는  
사랑한다는 것은 그렇게 소박한 노동이다.**

여러분! 사랑이 큰 거 아닙니다. 3주일도 채 남지 않은 암 환자들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회 봉사 위원회 여러분! 헌신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 드리자면, 고통 당하는 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죽음!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갑니다. 빈손으로 가는 길이 죽음의 길입니다. 요한계시록 14:13절에 성령의 수고의 열매만 가지고 이세상을 떠난다고 합니다. 사랑의 열매만 가지고 갑니다. 다 두고 갑니다. 기회가 되시면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물질을 많이 쓰세요. 왕십리 교회에서도 독지가가 나오셔서 호스피스 시설 만드세요. 여러분! 호스피스 봉사 교육을 받으시는 것 자체로도 유익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여러분 봉사하세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인생을 논하지 마세요.” 어느 철학가가 이야기 했어요. 그 이름은 원주희라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원주희 목사

- 현 샘물 호스피스 선교회 회장
- 한국 호스피스 협회 2대, 5대 회장 역임

## 2005년 유치부의 꿈

안녕하세요!

저는 2005년 유치부를 새로 섬기게 된 김경심 전도사입니다.

제가 처음 왕십리교회에 왔을 때 감동적이고 인상적인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쁜 느낌을 주는 교회, 본당을 24시간 개방하여 계속 기도의 불을 붙이는 모습, 담임 목사님의 유난히도 행복하게 보이는 스마일 눈, 왕십리교회 유치부 친구들의 천사처럼 찬양하는 모습, 맘 좋은 우리 유치부 교사들의 믿음직한 모습 등입니다.

유치부는 선교와 구령의 열정에 불타는 조현무 장로님과 포근하고 자상한 아버지처럼 온갖 일들을 솔선수범하여 주시는 배종호 부감 집사님을 비롯하여 기드온의 삼백용사와 같은 30명의 교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년 간 예쁘기도 하고 불타는 열정으로 지혜롭게 유치부를 지도해주셨던 김희정 전도사님과 함께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었던 교사들의 헌신과 맘의 결실로 2005년도에

도 “말씀으로 제자되고 제자삼는 유치부”가 되기 위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된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유치부를 섬기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기도하고 있는 것은 어린이가 최대한 빨리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이를 향하여 그리시는 인생의 설계도에 따라 부모님이 기도하며 어린이가 비전의 성취를 위해 기도하며 실력과 영성을 쌓아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 가운데 엄청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할 수만 있다면 좀더 빨리 예수님을 마음 속에 모셔들이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라도 영생을 소유한 어린이와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어린이는 천지차이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유치부에서 3월부터 새소식반을 시작하려고 합니



다. 이는 재미있는 말씀, 게임, 찬양, 요절암송 등을 통해 진행되는 전도와 양육 프로그램입니다. 봄학기 12주, 가을학기 12주로 진행되는 데 이 일에 헌신할 교사들을 붙여주시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 유치부 교사가 아니라도 하나님께 훈련받고 헌신하고자 할 뜻이 있는 분은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영어특별활동을 위해 기도부탁드립니다. 하반기부터 영어동아리 활동 내지는 영어특별활동을 시작하려 합니다. 전도가 첫번째 목적이고, 말씀의 내용으로 진행되는 여러가지 영어 프로그램을 통하여 제자 양육도 되어지고 영어실력도 향상시켜 세계 속의 어린이로 자라게 하는 데 두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준비되고 적절한 교사도 붙여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유치부 시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의심하

지 않고 받아들이는 시기인데 이런 황금시기의 어린영혼들을 섬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2005년도에도 말씀충만, 기도충만하고 찬송하기 좋아하는 어린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어린이로 자라도록 기도하며 풍성한 충성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유치부 교사들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치부는 5-7세 유아들이 오전 11시에 모여 1시간 예배드립니다.  
반은 연령에 따라 총 17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씨앗반(신입반) 한반, 새싹반(5세) 다섯반, 꽃반(6세) 다섯반, 열매반(7세) 여섯반입니다



# 돌아온 탕자(1)

- 박관준 장로 편 -

돌아온 탕자 (1)  
돌아온 탕자 (2)  
돌아온 탕자 (3)

이 글은 총회순교자기념사업부의 순교자 전기 4 '예배당을 빌려 줄 수 없소' 중 박관준 장로님에 대한 글을 바탕으로 각색되었습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 많은 성경 인물 가운데 나는 탕자가 좋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탕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그 아버지가 좋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바로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 1. 탕자로 살다.

나는 1875년 4월 13일 평안북도 영변성의 명문 대가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 비록 나는 막내이기는 했지만 위로 형들이 모두 어린 나이로 죽어 외동아들이 되었다. 밀양 박씨 집안을 이어나갈 기둥으로 나는 부모님의 사랑과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자랐다. 손이 귀한 집안이라 15살이 되던 해에 나보다 2살 많은 아내와 결혼을 했다. 그런데 결혼한 지 2년 만에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또 3년 후에는 동학 전쟁으로 어머니를 잃고 땅을 제외한 집안의 모든 재산을 도둑맞게 되었다. 하지만 동학이 평정된 이후에는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 많았기에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다. 탕자에게 재산이 그를 방탕하게 만들었듯이 엄청난 집안의 재산은 나로 하여금 죄 가운데 빠져 살게 만들었다.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와 풍채 좋은 외모 그리고 많은 재산으로 나는 친구들과 사이에 인기가 많았다. 친구들과 함께 기방을 출입하며 재산을 탕진하기 시작했다.


어느날 나는 심각한 병을 얻게 되었다. 어떤 약을 쓰더라도 병세는 더욱 악화되지만 하였다. “여기서 우리 박씨 가문이 끝이 나는구나! 결혼한 지 오랜 기간이 흘렀지만 자녀가 없으니 죽어서 조상님들을 어떻게 뵈꼬.” 이리 저리로 기방을 찾아다니며 보낸 시간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또 약을 가지고 들어온다. 그녀를 볼 때면 미안함으로 고개조차 돌리기가 싫다. 그러도 무심했건만 그녀는 매일 곁에서 직접 시중을 든다. ‘이제 죽을 때가 된 것인가? 왜 이렇게도 목이 마르지? 목구멍안이 다 갈라지는 것 같구나.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지.’ 목이 타들어가는 갈증을 나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자고 있을 아내를 불렀다. “여보, 거기 누구 없소? 목이 타니 빨리 물 좀 주오” 그러자 잠시 후 아내가 급하게 물을 한 사발 가지고 들어왔다. 얼마나 급했던지 내게 쓰러지듯 사발을 내밀었다. 나는 그녀가 주는 대로 사발의 물을 들이켰다. 그런데 평소 물맛과 맛이 너무 달랐다. 그 뿐이 아니라 목에서 이상한 것이 걸렸다. “여보 물맛이 왜 이렇게? 거기다 목에 무엇인가 걸리는데, 도대체 이게 뭐요?” 아내는 내게 녹용을 달이고 남은 탕약이라고 말했다. 그날 이후 내 병세는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문 밖에서 엄청난 소리를 듣게 되었다. 바로 아내가 그날 내게 먹인 탕약은 바로 아내가 허벅지를 찢러 자

신의 피를 받아왔다는 이야기였다. 지난날의 내 행실이 부끄러워 울었고, 아내의 엄청난 사랑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울었다. 다시 탕약을 들고 기어오듯 불편한 몸으로 다가오는 아내의 허벅지를 바라보면서 아내를 붙잡고 울었다. 고맙다고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무심하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을 했다. 아내의 눈에도 온통 눈물범벅이었다. 한 달쯤 지나자 나는 제법 건강을 되찾게 되었다. 기방 출입 대신 마을 사람들과 활을 쏘며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아내의 놀라운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그 이야기는 조선통감부에 보고되어 제3대 조선통감 테라우찌로부터 상과 상금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다시 예전의 생활로 돌아갔다. 전용 마부가 달린 말을 타고 평양과 주변의 많은 기방을 돌아다니며 골패와 투전 등의 도박을 하기 시작했다. 그렇게도 눈물을 흘리며 각오하던 다짐은 건강을 되찾은 후 다시 물거품이 되었다. 거기다 한시를 잘 짓고 유교와 불교의 경전을 잘 알고 학식이 풍부하여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있었다. 비록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었으나 다른 부잣집 친구들과 같이 시대를 한탄하고 걱정하며 기방에서 세월을 허비했다. 그것은 나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부잣집 도련님들의 유행

이었다.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이나 중들에게는 인색하지 않았다. 풍류를 즐기며 한 세상 걱정 없이 사는 것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 2. 하나님의 첫번째 두드림

그런데 어느 날 한 코쟁이가 내게 예수씨를 믿으라고 권하였다. 나라 여기저기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서양 귀신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마음 속으로는 탐탁치않게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신기하게 생긴 코쟁이 선교사와 그가 보여주는 신기한 물건들에 나는 그에게 호감을 가졌다. 그러나 내게 예수씨를 믿으라는 그에게 나는 서양인들에게는 서양의 신이 있고 동양에는 우리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다고 거절하였다. 더불어 서양 선교사가 천국에 대해서 말하자 나는 극락에 대해서 말해 주었다. 그날의 만남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첫 번째 두드림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두드림에 대답해지 않았다. 나는 그날 내가 껍이나 잘 하였다고 생각했다. 나만 전도하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함께 전도할 수 있다는 소식에 나를 찾은 선교사를 둘러보내며 가슴 한 구석에 한이 풀리는 것 같았다. 기세등등한 양놈한 부대를 물리치는 것 같은 뿌듯함으로 돌아가는 선교사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 오십견


우리 몸의 관절 중 가장 운동범위가 넓어 그만큼 손상의 위험이 큰 부위인 어깨관절에 중년 이후 특별한 외상이나 원인없이 가벼운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하다가 점점 통증이 심해지면서 운동장애가 나타나는 경우를 오십견이라 말한다. 50대에 가장 많이 나타난다 하여 이름 붙여진 이 어깨통증은 노화현상의 일종으로 생각되어 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운동부족, 스트레스 불안정한 자세 등으로 20, 30대에도 자주 나타나고 있다.

오십견의 가장 큰 원인은 노화이다. 그러나 운동부족과 올바르지 못한 자세 등도 오십견 유발에 영향을 미치며 어깨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사람이나, 반대로 어깨나 목, 손가락 등에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 어깨를 사용하지 않아 나타나기도 한다. 열중쉬어 등 팔을 옆으로 돌리는 동작을 하지 못하거나 옷을 입거나 머리를 빗을 때 조차 어깨 통증을 느낀다면 일단 오십견을 의심하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 오십견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근육조직이 점차 약해져 어깨 관절막이 퇴행, 어깨관절을 이용한 동작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목과 어깨가 굳어지면서 통증을 유발하고, 심할 경우에는 머리빗기, 옷입기 등도 곤란해 일상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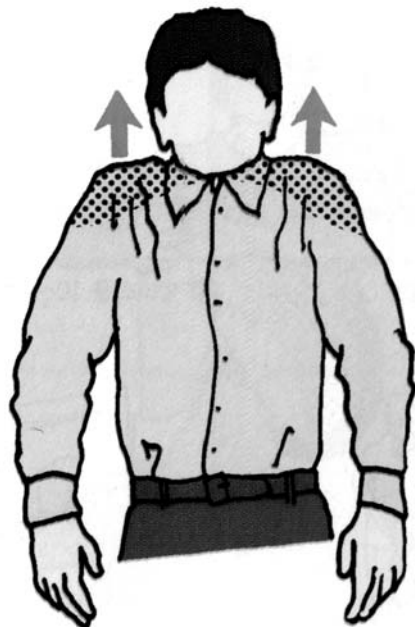
오십견 치료의正道(正道)는 운동이다

일단 오십견이 나타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통증으로 인해 어깨를 사용하지 않게 되는데 이는 오히려 어깨 관절의 운동범위를 좁히는 결과를 초

래한다. 따라서 어깨 결림과 통증이 느껴질 때는 의식적으로 어깨운동을 해주는 것이 필수적이다. 어깨를 움직일 때 통증을 느끼더라도 하루 3~4차례 팔과 목을 돌리고 늘여주는 운동을 매일 2~3회 정도 꾸준히 반복하는 것이 좋다. 가능한 한 관절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넓혀주는 것이 중요하며 운동을 마치고 한 두 시간이 지난 후에도 어깨가 얼얼한 느낌이 들 정도의 강도가 바람직하다.

오십견이 심할 경우에는 침구치료 등의 한방치료를 받아야 하며 증세가 호전된 후에도 꾸준한 운동으로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한의원 원장 임청산 집사





## 겨울 창문

아주 많은 일들을 앞에 쌓아두고서  
아무 일도 없는 듯 잠시 돌아왔습니다.

창 밖은 겨울이 한창입니다.  
안팎으로 공기가 너무나 달라  
제 방 창문 안쪽으론 물이 흐르고  
바깥쪽으론 두껍게 얼음이 얼었습니다.  
꽂꽂 얼어붙은 창문을 몇 번 흔들어보는데  
도무지 열리지 않습니다.  
한동안 포근한 이상기온이 계속되더니  
드디어 지난주부터 추위가 살아났습니다.

그 덕분에 겨울경기도 살아나고  
추운한파를 이겨내려는 사람들 안에는  
면역력이 생겨 더욱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추위를 이겨내며 한결 강인해지듯  
우리 인생도 시련을 겪어내면서  
견고해져 가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 한파가 싫지만은 않습니다.  
저 작은 방 창문처럼  
안으론 늘 따뜻한 물이 흐른다고 해도  
행여나 바깥으론 싸늘하게 얼음이  
얼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제 마음의 창문도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누군가 제 마음 그리워하며  
두드리고 흔들어대고  
애타게 기다리지 않도록  
이 겨울……  
조금 춥더라도  
마음의 문을 한 뼨 열어두어야겠습니다.

많은 일이 산적해 있다해도  
일 때문에 사람을 향해 돌아앉는 일은  
없어야겠다고 생각해보는 오늘입니다.




### ▶ 초등부 동계수련회

지난 1월 24일-25일 양일간에 백봉산 기도원에서 본 교회 초등부(지도 김희정 전도사)주최로 '정복! Two Mountain' 이라는 주제아래 동계 수련회가 개최되었다. 도착 하자마자 하나님께 감사드리 는 예배로 시작한 수련회는 자기 조에 대한 이름 과 구호, 율동 그리고 그 조의 상징인 깃발을 만 들어 발표하는 '뭉쳐라 우리 조!' 라는 프로그램으 로 시작해서 닭싸움, 풍선배구 등으로 진행된 '조 별 대항 올림픽', 예배소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통독하고, 각조가 5분 드라마로 발표 한 '엠폰산과 빌골산 정복하기', 그 동안 배운 성경지식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성경 골 든벨'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말 씀의 지식을 배우고 서로간의 친교를 다졌다. 매 일 아침 체조와 큐티로 수련회를 통해 그리스도 인의 생활 습관을 배웠다. 마지막 날은 수련회에 참석 한 모든 아이들이 눈썰매를 타기위해 서울리 조트를 찾아 서로간의 우의와 사랑을 나누었다. /김수연 기자 


### ▶ 고등부 동계수련회

지난 2월18일 백봉산 기도원에서 고등부동계 수련회가(지도 이승민 목사) 'Find your place'란 주 제로 개최되었다. 20일까지 2박3일간 진행된 이번 수련회는 마지막날인 주일(20일) 고등부 예배실 에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수련회를 마침으로써 참 석하지 못한 학생들도 모두 함께 하는 수련회가 되도록 진행되었다. 또한 주제에 맞게 자신을 알 아갈 수 있는 여러가지 은사테스트와 DISC 검사, 자신의 열정과 관심사를 알아가는 프로그램들로 채워졌다. 이번 수련회는 고등부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이었으며 특히 이번 수련회때 얻어진 학생들에 대한 여러가지 성격유형과 관심사 등은 고등부에서 학생들에게 맞는 여러가지 봉사과 사역들을 진행할때 좋은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행하는 고등부 만들기의 기초 작업이었다. 이전 수련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청년부에서 많은 청년 교사들이 자원하여 수고하였으며, 찬양 인도등을 통해 선후배 간의 돈독한 우정을 나눈 것도 은혜로운 일이었다. /김여진 기자 

### ▶ 중등부 동계수련회

지난 1월20일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청소년 전문 선교 단체인 '주라바기'와 본교회 중등부(지 도 박영석 전도사)가 "네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는 주제로 연합 동계 수련회를 2박3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수련회에는 전국에서 모여든 1500명이상의 학생들이 참여하였으며, 이찬수 목사를 필두로 많은 사역자들의 뜨거운 찬양과 설교로 은혜를 받았다. 처음에 분위기에 적응이 안돼 서먹 서먹하던 우리 친구들이 전도 사님의 헌신적인 노력에 점점 예배에 재미를 붙

여가고 임하는 태도도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한나절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나니 분위기가 달 아오를만큼 달아올랐고 저녁에 금식을 하기로 하 는등 주일날 무심히 예배드리던 학생들의 모습은 없어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며 정성 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이었다. 금번 수련 회를 통해 레크레이션 시간이 없이 예배드리는 공동체만으로도 서로 통할수 있다는 기쁨을 느꼈 고, 전국에 있는 학생들의 예배드리는 모습에 우 리 교회도 분발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기회가 되었다. /취재 중등부 최규환 선생님 

## ▶ 2005년 제 15기 강북LMTC 및 EMTC 훈련생 모집

총회단기선교사훈련과정(강북LMTC) 및 출애굽 선교훈련원(EMTC)가 2005년 제15기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출애굽선교훈련원(EMTC-Exodus Missionary Training Center)**이란 선교의 3중 정책에 동참하는 광현, 용두 동원, 산돌 중앙, 성도, 왕십리, 혜성 교회 등이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기 위하여 세계 출애굽 선교단(GEM - Global Exodus Mission)을 창립하고 선교 훈련 기관으로 1998년 3월에 개설한 훈련기관입니다.

본 훈련원은 평양 대부흥 운동 100주년 기념해인 2007년을 전환점으로 한국 교회의 '영성회복 및 교회부흥의 출애굽 대장정'을 향한 출애굽 운동가의 양성에 주목적을 두고 있으며, 왕십리 교회의 경우, 평신도 공식 훈련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출애굽 선교 훈련원은 총회 강북 지역선교 훈련원과 함께 공동 커리큘럼을 운영되고 있어서, 하나의 훈련과정으로 동시에 두개의 훈련기관의 수료인증을 받을 수 있는 특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 기간 : 2005년 3월 15일(화) - 6월 7일 (화)

\* 구성 : 12주 평일훈련(화, 저녁7시), 1박2일 집중 생활훈련

\* 내용 : 선교의 이해, 단기선교사 준비훈련, 영성 훈련, 출애굽운동의 실천 등

\* 정원 : 40명 내외

\* 대상 : 하나님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기를 소원하는 선교지망생 및 관심자.

\* 장소 : 왕십리교회 중등부 실

\* 비용 : 학기당 20만원(장년) / 16만원(청년)

### \* 훈련 특전

- 1) 총회세계선교회(합동) 단기선교훈련 수료증 수여(단기선교사 자격 부여)
- 2) 장기 선교사 파송 희망시 총회 훈련 일정기간 면제
- 3) 세계출애굽 선교단 선교훈련 수료증 수여

\*신청 기간 : 2005년 2월 17일 - 3월 15일

\*신청방법 : 왕십리교회 홈페이지([www.wpc.or.kr](http://www.wpc.or.kr))에서 EMTC 배너를 클릭하신 후 게시판에 신청자의 이름과 교회 그리고 전화번호를 남기시고, 훈련비를 입금하시면 됩니다. 최소 1만원 이상 입금하시면 등록하신 것으로 인정함.  
(국민은행 772-24-0043-282 김남수)

\* 문의 : 김남수 목사.☎




본 란은 우리교회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글 중에서 좋은 글들을 발췌하여 함께 나누고자 마련한 지면이며, [www.wpc.or.kr](http://www.wpc.or.kr)(왕십리교회 홈페이지) 성도의 교제란의 게시판에서 원본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름 : 한익삼  
 작성일 : 2005-02-17

## “축호”란

우리 교회에는 여러 전도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회에서 쓰는 언어 중에 확실히 모르고 사용하는 단어들이 더러있으나 다른 회원들에게 물어보자니 창피한 생각이 들어서 묻지도 못하고 그럭저럭 넘어가는 단어 한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척교회를 방문할때 쓰는 단어중 “축호”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축호가 무엇인지 궁금히 여기면서도 마땅히 알려주시는 분이 없는것 같아서요! 제가 알고있는 상식을 전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세요.

“축호(逐戶)”란 한집도 거르지 않는다는 뜻으로서 축호전도 즉, 지원교회 방문시 그 지역 마을에 살고있는 사람들을 가가호호 찾아 다니면서 전도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므로 “축호전도”비용이 30만원 책정되었다고 한다면, 축호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다른 목적으로 축호비가 사용된다면 원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일이 될수 있습니다. 




414	★성가사 박종호 미니스
413	제1회 YEM 동문장학금
412	십자가가 너무 무겁다고
411	교회, 나의고민 나의사랑 본문 중에서 (필립 안시)
410	캐나다 퀘거리의대 당노 신물질 개발
409	”축호”란?
408	평신도(전문인) 선교사님을 모집합니다

이름 : 한규상  
 작성일 : 2005-02-21

## 공회, 나의고민 나의사랑

### 본문 중에서(필립 안시)

예전의 나는 꽤 똑똑한 체하는 소비자의 태도로 교회를 대했다. “어디 내 마음에 드는 즐거운 예배인가 보자.” 나와 같은 부류의 인간들을 일러 키에르케고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극장의 일종으로 여긴다고 말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회중들의 마음에서 발생한다. 우리는 “오늘 내가 예배에서 무엇을 얻었는가?” 질문하며 교회문을 나서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이렇게 자문해야 한다. “나의 예배로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가?” 이제 나는 예배에 임하면 위를 본다. 강대상 너머 하나님을 향해 나의 시선을 고정시킨다. 시선의 변화이다. 가장 중요한 관객은 회중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교회는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혹은 약한 자를 격려하기 위해서, 혹은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혹은 교제를 장려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존재한다. 성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다시 말해 예배의 핵심에 분명한 강조점을 둔다. 이스라엘은 예배의 형식에만 몰두함으로써 정작 중요한 핵심은 놓쳤다(시 50:9-10). 가톨릭 교회는 성찬 예식 혹은 미사가 예배의 중심이며 그들 자신은 예배를 돕고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나는 음악이나 예배순서 등의 부가적 장식물에는 이제 마음 쓰지 않는다. 예배의 목적, 곧 하나님과의 만남을 제쳐두고 부수적인 장식물에 정신을 빼앗겨 무엇보다 중요한 말씀을 놓쳤으므로……. 

# 비전있는 사람이 되라

성경 / 이사야 6:1-8 · 찬송 / 27장, 46장

가정예배  
첫째 주간

61웃시야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62스랍들은 모서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63서로 칭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64이 같이 칭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65그 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니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보았음이라 66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자로 단에서 취한바 핀 솥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67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달았으니 네 악이 제거하였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히더라 68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 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비전이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동참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창조적인 일을 해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비전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사야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은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한 평범한 젊은이가 비전 있는 선지자가 되기까지 그에게는 몇 가지 거쳐야 할 단계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비전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 1.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1-4절

이사야는 웃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은 그의 삶 속에 어느 역사적인 순간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피상적인 지식이 아닌 구체적인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행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만났을 때 핏박자가 변하여 이방인의 대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들판을 함께 걷던 친구가 벼락을 맞고 죽는 것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 2. 정결함을 받아야 합니다. 5-7절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는 즉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부정이 있음을 깨닫고 탄식하였습니다.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5절) 눅5장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데로 그물을 던진 베드로가 많은 고기를 잡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 자신의 죄 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고백하는 이사야에게 제단 숯불로 입을 지저 정결케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후5:17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산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는 모든 잡목을 벌채해 버리고 좋은 수목으로 인공조림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3. 사명을 받아야 합니다. 8절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 때 이사야는 강한 사명감이 끓어올랐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은 사명을 느끼는 사람을 쓰십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이 곧 비전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갈 사람입니다. 시84:10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 내가 여기 있다

성경 / 이사야 6:5-8 · 찬송 / 167장, 168장

6:5 그 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보았음이라 6:6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바 핀 솟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6:7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6:8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 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스라엘 백성은 웃시야 왕이 죽자 나라의 대권이 공백 상태가 되고 나라가 슬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혼란의 때, 고난의 때, 위기의 순간에 이사야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몇가지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 1.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체험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족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선민이라든가 충청도 양반이라든가 하는 의롭고 특별한 의식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성령의 밝은 조명 가운데서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의롭고 결코 죄인이 아니며 그리스도 속죄의 죽으심을 받아 드리려 하지 않는 오만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일꾼도 될 수 없습니다.

## 2. 사죄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깊은 죄의식에 잠겨 망할 자기의 실제적 모습을 보고 슬퍼할 때에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바 핀 솟을 손에 가지고 날아와, 이사야에 입에 대며 말하기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란 사죄의 은혜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거룩한 보혈을 흘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사죄의 은혜를 베풀어주셨습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죄사함을 받고 중생의 은혜를 입으면 악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죄란 얼마나 크고 어려운 문제였던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댓가를 치르며 사죄의 은혜를 베풀어주셨습니다.

## 3. 주의 부르심에 대하여 체험했습니다.

어느 시대서나 일꾼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사죄 받고 구별된 사람만이 할 수 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갈 일꾼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때에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응답의 소리를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다. 나를 보내소서"하고 일어서서 "내 어린양을 먹이라"는 주의 주시는 사명을 받고 힘써 주의 뜻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 / 히브리서 3:15-19 · 찬송 / 172장, 173장

가정예배  
셋째 주간

3:15성경에 일렸으니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박케 하지 말라 하였으니 3:16듣고 격노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좇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3:17또 하나님이 사십 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었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3:18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3:19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기독교도들에게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구원과 영생입니다. 흔히 우리는 구원을 값없이 받는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구원을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흘려 죽으셨습니다. 죄인된 나는 죄사함을 받기 위해 피를 흘리거나 매를 맞은 일이 없는데 우리의 주님되시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기 위하여 매를 맞으셨고, 피를 흘리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너무나 쉬운 구원의 선물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합니다.

## 1.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이 강박한 사람은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박하다는 것은 굳어진다, 딱딱해진다, 경직화된다는 뜻입니다. 본문은 강박해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의 바로는 강박하다가 망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5:20을 보면 바벨론의 황제 느부갓네살도 그 마음이 강박해졌기에 왕위를 빼앗기고 쫓겨났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6장을 보면 남왕국 유다 왕 시드기야 역시도 마음이 강박해져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다가 망했습니다. 욥9:4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스스로 강박히 하여 그를 거역하고 형통한 자가 누구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강박해 지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죄의 유혹과 교만과 불신앙이 주범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불신앙과 교만과 유혹을 몰아내고 강박한 심령을 부드럽게 해야 할 것입니다.

## 2.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면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의 꿈과 소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수시로 떠났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텐데 광야에서 물이 없다, 덥다, 고기가 없다, 과일이 없다며 불평합니다. 그러다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고, 2세대들만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14절을 주목해야 한다.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불신앙의 반대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불신앙을 버리고 겸손해 질 수 있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로 소원하는 자마다 예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 보혜사 성령의 사역

성경 / 요한복음 16:5-13 · 찬송 / 173장, 177장

16:5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16:6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하므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16:7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16:8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16:9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의요 16:10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의요 16:11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16:12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16:13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

본문은 성령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가르쳐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세분이 되십니다.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이 삼위일체의 교리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고 다만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기독교의 신비로운 교리입니다.


## 첫째로, 보혜사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7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을 보혜사라고 하셨는데 보혜사는 곧 대언자 또는 변호인 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고 또 우리 죄인들을 변호해 주셨는데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언제나 계시지만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보혜사라는 새로운 직분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상담자가 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 둘째로, 보혜사 성령은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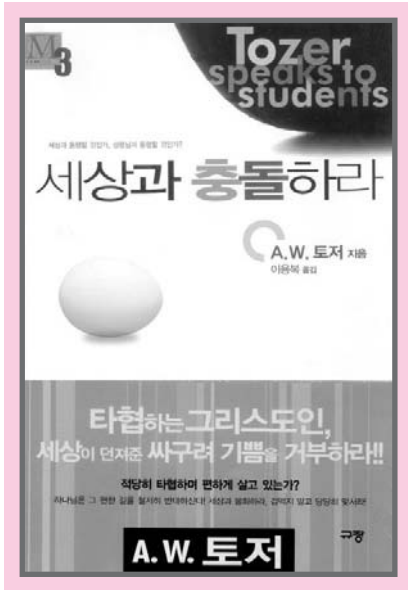
성령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하나님의 능력이나 감화로만 생각하고 있지만 성령도 완전한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격이란 지성을 말합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감정적으로 느끼며 의지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격입니다. 인격자이신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롬8:26)

## 셋째로, 보혜사 성령은 세상을 책망하십니다(8절).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십니다. 성령은 죄를 책망하시는데 그 죄는 곧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9절). 그러므로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인 줄 알지 못하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자체가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믿기 전에는 도덕적으로 바로 하는 것만이 의로 여겼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된 의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10절). 그리고 성도가 세상에 소망을 두고 땅의 것만을 위하여 산 것은 전부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모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곧 믿는 일을 하는 것이며 성도의 생활인 것입니다. 



## 세상과 충돌하라



A. W. Tozer 지음 / 이용복 옮김 / 규장 / 9,000원

‘세상과 충돌하라’의 지인이 ‘토저’는 이전에 ‘예배인가, 쇼인가!’,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라는 책들이 이미 번역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왔다.

아직 ‘토저’라는 이름은 우리 한국의 평범한, 그리고 가끔 기독교적을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지만 그가 지은 수많은 책들은 이미 수많은 설교가운데 인용되어지고 있다고 한다. 또한 앞으로도 더 많은 책들이 번역되어 출간될 예정에 있다고 한다.

토저의 글들을 보게 되면 그가 집필을 하고 설교를 한 시대는 분명 2차 대전 이후로부터 60년대 초반으로서 약 50년 전이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지금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

이 책을 읽으려면 먼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우리의 신앙 생활을 되돌아볼 결심을 해야 할 것이다.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A. W. Tozer / 이용복 옮김 / 규장 / 9,500원



예배인가, 쇼인가!


A. W. Tozer / 이용복 옮김 / 규장 / 8,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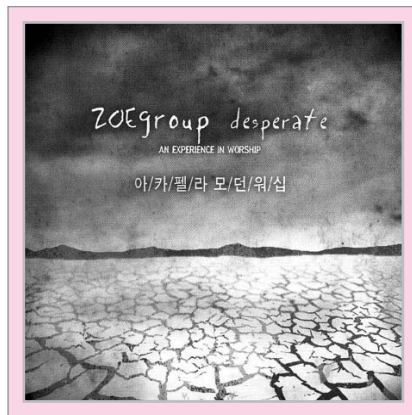
## ZOEgroup DESPERATE 아카펠라 모던위십

이번에 오직 9사람의 목소리에만 의지하여 찬양하는 그룹인 “조이그룹(ZOE group)”이 탄생됐다.

이 음반에 실린 곡들은 해외의 최신 예배 음악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알 수 있는 곡들이다.

어떤 악기도, 다양한 기교도 없기에 ‘가사 자체’에 더더욱 귀기울일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악기인 목소리에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음반이라 생각된다.

이 음반은 음식에 비유하자면, 아주 강렬한 맛을 가진 음식들 가운데서 아주 담백한 음식을 맛본 느낌이라고 할까? 




ZOEgroup / 인피니스 / 13,500원(CD)

WANGSIMNI 26



## 예수 3 : 순 중 (11,000원 CD)

한국의 최고의 CCM가수, 최고의 연주자들이 참여한 음반이다. 오케스트라와 국악기, 그리고 성악의 어울림이 참으로 아름다운 음반이다. 또한 본 교회에 참석하고 있는 ‘소망의 바다’의 전영훈 형제가 참여한 음반이기도 하다. 

**러시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Yesterday, Today, Forever**  
(8 DC - 88,000원)



# FOOD

# 새우리조또

어느 음식점에 가면 무슨무슨 리조또라는 이름의 메뉴를 종종 보게 됩니다. 잘은 몰라도 맛나게 먹느라 크게 신경쓰지는 않았는데요. ^^; 리조또란 쌀을 볶은 다음 부재료를 넣고 끓여서 불리듯 만드는 이탈리아 볼로냐 지방의 쌀요리입니다. 우리나라의 죽과 밥 중간쯤 되는 질감으로 만들지요. 이번에는 이 중에서 새우리조또를 한 번 시식해 보실까요?



### • 필요한 재료

쌀 2컵, 물 2컵, 새우 12마리, 양파 1개, 다진 마늘 1½큰술, 양송이버섯 5개, 버터 4큰술, 백포도주 ½컵, 생크림 ½컵, 소금·후춧가루 약간씩, 파마산 치즈 ½컵, 다진 파슬리 1큰술

### • 준비하기 -

1. 쌀은 밥짓기 1시간 전에 씻어 물에 담가 불린 후 체에 건져 물기를 뺀다.
2. 새우는 꼬치로 등쪽의 내장을 뺀 후 몸통의 껍질을 벗긴다.
3. 양파와 마늘은 곱게 다진다.
4. 양송이버섯은 3mm 두께로 썬다.

### • 만들기 -

1. 달군 팬에 버터를 녹이고 양파, 마늘을 볶은 후 쌀을 넣고 투명하게 볶는다.
2. 물을 조금씩 붓고 저으면서 쌀이 익기 시작하면 백포도주를 넣고 계속 짓는다.
3. 윗물이 거의 다 없어지고 쌀이 익으면 생크림과 양송이버섯, 새우를 넣고 소금과 후춧가루로 간한다. 파마산 치즈와 다진 파슬리를 섞고 불을 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यो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한복음 14:6)**

**예배안내 및 성경공부 안내**

▶ **예배 안내**

- 주일 예배**
- 1부 : 오전 7시 30분
  - 2부 : 오전 9시
  - 3부 : 오전 11시
  - 4부 : 오후 1시
- 주일 찬양 예배** : 오후 3시

- 수요 예배**
- 1부 : 오전 11시 / 2부 : 오후 7시
- 기도회**
- 새벽 기도회 : 매일 새벽 5시
  - 금요 기도회 : 금요일 오후 9시

▶ **주일 학교 안내**

- 영아부 : 오전 10시 30분
- 유치부 : 오전 11시
- 유년부·초등부·중등부·고등부 : 오전 9시
- 유·초등부 2부 : 오전 11시 30분
- 청년부(주일 4부) : 오후 1시

몽골예배/중국어예배 : 오전 11시

▶ **성경 공부 안내**

- 새신자 7주 공부 : 각 예배 후
- 장년1부 성경공부 : 오후 1시
- 장년 2부 성경공부 : 오후 1시



대한예수교  
 장로회 **왕십리교회**  
[www.wpc.or.kr](http://www.wpc.or.kr)

발 행 인 : 오치용 목사    주    필 : 김재영 장로    지    도 : 이승민 목사  
 주    간 : 이종훈 집사    취    재 팀 : 장숙현 집사, 임현석, 홍지혜, 이수정  
 사    진 : 차주영    미술 디자인팀 : 김현정, 유정림, 김윤주  
 객원기자 : 배승원    신입기자 : 서주은, 김수연, 김여진, 김연주

편    집 : 출판 위원회 왕십리 신문사    발    행    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왕십리교회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왕십리동 304  
 ☎    교회 : 02-2299-1011    출판실 : 02-2295-0114    FAX : 02-2292-0309    인쇄 및 제작 : 크리커뮤니케이션(☎ 02-2285-4109)